

# 취향 따라 즐기는 전주 도서관 여행

### 시,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 선택형 제공 · 신규 특화도서관 코스 추가 등 확대

대한민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인 '전주 도서관 여행'이 올해부터 여행자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코스로 확대된다.

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되는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 하루 5개의 도서관을 깊이 있게 여행하는 구석구석 하루 코스(주회)와 도서관 여행을 통해 휴식과 문화, 예술을 경험하고 가족과 함께 놀이도 체험해 볼 수 있는 쉬엄쉬엄 반일코스(주회)로 나뉘어 제공된다고 15일 밝혔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참가자들은 △전주시청 책기동도서관 △올해 새롭게 개관한 다가여행자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을 둘러보는 코스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여행자들의 취향을 담은 4개의 주제별 코스인 '쉬엄쉬엄 반일코스'를 추가로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 총 2차례 운영되는 반일코스 프로그램은 △책+읽 코스(매월 1·3·5주 오전) △책+문화 코스(매월 1·3·5주 오후) △책+예술 코스(매월 2·4주 오전) △책+자연놀이 코스(매월 2·4주 오후) 등 선택형으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책+읽' 코스는 도서관여행자들이 책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출발해 숲 속에서 시를 벗 삼아 휴식할 수 있는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전주여행의 첫 시작점인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책+문화' 코스는 도서관과 여행을 결합

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는 여행자도서관 코스로, 책기동도서관에서 출발해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을 한 번에 경험해볼 수 있는 코스로 짜여졌다. '책+예술' 코스 참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그림책을 만날 수 있는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과 더불어 분야별 아트북과 절판본 등 희귀 예술도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비거북(Bigger book) 등이 비치된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을 여행할 수 있다. 끝으로 '책+자연놀이' 코스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여행 코스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의 책놀이 △학산숲속시집도서관 △만내호수 산책과유아숲놀이 체험 △책기동도서관 책놀이 프로그램 △노송광장 자연놀이터를 함께 즐겨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도서관 여행을 함께 진행할 전주 도서관여행 해설사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자 미래세대가 꿈을 키울 수 있는 시민 삶의 중심 공간이여야 한다"면서 "도서관을 통해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삶이 다시 책이 되는 도시, 도서관 여행으로 시민뿐 아니라 여행자에게도 사랑받는 인문관광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6개 대학, '2050 탄소중립 실천 릴레이 선언식' 동참

### 전북대 · 전주대 · 전주교육대 · 예수대 · 전주기전대 · 전주비전대, 10가지 탄소중립 실천 행동 선언

전주지역 6개 대학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2050 탄소중립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예수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 등 전주권 6개 대학이 총장 주재의 '2050 탄소중립 실천 행동 릴레이 선언식'을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찬)은 15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와 전주비전대학(총장 정상모)는 16일, 예수대학교(총장 김찬기)는 18일 '2050 탄소중립 실천행동 선언식'을 통해 지구를 살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조성 실천 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전주교육대학교는 신임총장 취임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다.

각 대학은 '2050 탄소중립, 대학교와 실천해오'를 주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2050 탄소중립 10가지 행동을 선언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특히 이번 릴레이 선언식은 지난해



전주지역 6개 대학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2050 탄소중립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주지역 6개 대학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동실천 협약 체결 후 환경 분야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대학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6개 대학은 △실내온도 여름철 26도, 겨울철 18~20도 유지하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하기 △미사

용 컴퓨터 전력 차단하기 △계단 이용하기 △등하교시 버스나 자전거 이용하기 △머그컵과 텀블러 사용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기 △인쇄 시 종이 사용 최소화하기 △물 절약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 10가지 탄소중립 실천행동을 다짐하며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

# 명실상부 대한민국 문화수도 전주

### 시, '2020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서 전국 종합 1위

전주시가 시민들의 문화 수준을 반영하는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평가됐다. 2014년과 2017년 평가에 이은 3회 연속 성과로, 전주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문화를 이끌어가는 문화수도임을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20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전주시가 국내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구 통합 전체 지역문화 종합지수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3년 단위로 이뤄지며, 이번 조사에서는 △문화정책 △문화지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4개 분야 총 32개 지역문화지표와 37개의 코로나19 특별 현황지표를 적용해 진행됐다.

시는 다양한 전통음식과 한지, 한옥, 한복, 판소리 등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답게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독립영화의 집 건립 △예술공간, 완산벽커 1973' 조성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있다.

동시에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비빔밥축제 등 3대 대표축제를 해마다 개최하는 한편, △전라감영 전체 복원 △전주부성 일부 복원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전주중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조성 등 가장 전주는 문화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 접수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

방역물품지원금 지원사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업체) 가운데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16개종 업체에 방역관련 물품 구매비용으로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차 접수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중 방역패스 16개 업종으로 문자 미통보 업체 및 1차 접수 미신청업체다. 해당 업체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영수증 등 제출서류를 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6680, 6682~4)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일상 · 민생 회복으로 미래 여는 행복한 덕진'

### 전주시 덕진구, 소통 · 복지 · 안전 · 생태행정 등 구정운영 4대 기본방향 제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가 올해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시민들의 일상과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창 덕진구청장은 15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일상과 민생의 회복으로 미래를 여는 행복한 덕진'이라는 비전의 2022년도 구정운영 4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4대 기본방향은 △참여와 공감으로 감동 주는 소통행정 △포용과 배려로 함께 웃는 복지행정 △위기관리와 예방으로 믿음을 주는 안전행정 △조화와 균형으로 상생하는 생태행정 등이 다.

덕진구는 먼저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시민맞춤 공감행정을 펼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매체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행정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



최현창 덕진구청장.

QR코드를 활용한 자가정보 제공 △구청 홈페이지 세그먼트 서비스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 서비스 시행 △모바일 불법주정차 one-stop 시스템 구축 등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용과 배려로 함께 웃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과 수요자 중심의 최적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쓴다.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복지체계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례별 맞춤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구는 코로나19 방역관리와 더불어 일상 회복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일례로 재난·재해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전조치로 대형 사고 예방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끝으로 구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으로 상생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 △생활환경 오염관리를 위한 대기오염 배출 시설 오염도 검사 사전 예방 등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최현창 덕진구청장은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 행정으로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하루 빨리 완전한 일상을 되찾아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한 덕진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